

우리은행장 오디션 철통 보안… 늦어도 내주 쏷리스트 발표

임종룡 회장 ‘공정성’ 중요시
인선과정 대해 일절 언급 안해

빠르면 이번주 2차후보군 선정
26일 정기 이사회서 발표 예상

5대금융지주 최초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장 선정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중요시 한다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만큼 인선 작업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1차(롱리스트) 후보군 4명을 공개했다.

롱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64년생, 순천고 중앙대 상업은행 출신)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64년생,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왼쪽부터).

동래고 고려대 한일은행 출신)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64년생, 동국대사대 부고 국민대 한일은행 출신)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65년생, 관악고 경희대 상업은행 출신)다.

우리금융 ‘경영승계프로그램’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의 내부 논의만으로 은행장을 선임했던 기존과 달리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분야별 외부전문

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회 ▲업무 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 업무역량 평가 ▲자추위 최종 심층면접 및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T)으로 구성됐다.

우리금융은 1~3단계를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추리고 4단계 심층 면접 후 차기 은행장을 이달 선임할 예정이다.

1차 후보군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임종룡 회장과 사외이사 등에게 업무 현황과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행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2차후보군(쏷리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6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은행장을 선정할 것이라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CEO 후보 최종 평가를 앞두고 되면 후보들에게 1주일 정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후보자들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회사는 후보들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군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장 선임 과정에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임 회장의 철학에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쯤되면 쏷리스트 후보군 전망이 나올 시기인데 언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과 면접관, 노조 역시 외부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사내부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돌지 않고 있어 직원들 역시 궁금해 하고 있다”며 “후보 중 한 분과 이야기를 했지만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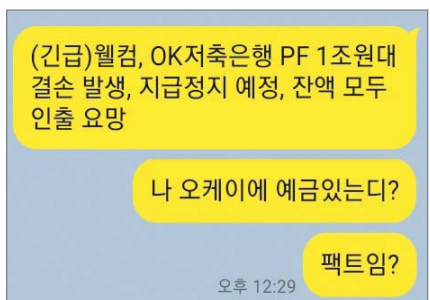
“5월 특수 자금조달”… 금리인상 저축은행, 부실루머 해명

전국 79곳 예금금리 0.5%p 상승
소비자들 부실영향 자금확보 의혹
저축은행중앙회 필두 전면 반박

저축은행이 최근 수신금리를 인상하자 예금주를 중심으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일부 저축은행을 향한 ‘악성 루머’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정의달 특수’를 겨냥한 자금조달 성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1년 물) 평균은 연 3.93%다. 지난달 초(연 3.77%) 대비 0.16%포인트(p) 오른 수치다. 평균 예금 금리는 이번 달에만 0.5%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속도라면 또다시 연 4%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초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은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유일했다. 이달 같은 수준의 금리



박현민(가명)씨가 지난달 공유받은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한 메신저 내역. /독자 제공

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은 11개로 증가했다. 현재 업계에서 책정한 정기예금 금리 상단은 연 4.5%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발 잡음이 지속되자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금융관련 커뮤니티와 맘카페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불안감 확산 배경에는 지난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부실 의혹 루머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올해 홍콩·더블·인천·오투 저축은행 등 네 곳이 실명확인 의무 위반 및 여신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부실 의혹을 두고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필두로 전면 반박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이며 유동성 비율은 241.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당국에서 책정한 유동성 비율인 100% 대비 141.4%p 초과한 수치다.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의달 특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상품 비율 증가 ▲대출량 증가 등을 이유로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가정의달인 5월은 부모님,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을 위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잦아 만기도래 상품 비율이 높아진다. 연말연시 저축은행이 고금리 특

판 상품을 출시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원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 4.5%가 넘는 예금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형 저축은행이 조달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위해 예금금리를 1~2%p 높게 책정하듯 중소기업사 또한 대형사에 견주 기 위해 금리를 상향조정 할 개연성이 있는 것.

이날 기준 웰컴저축은행은 ‘웰컴 e-정기예금’, ‘m-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세 상품의 금리를 연 4.5%로 조정했으며 OK저축은행은 ‘OK e-정기예금’에 연 4.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 부실이 확산하면 평균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가파를 것”이라며 “요즘처럼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각 사별 만기도래 상품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은행

기존통장→모임통장 운영

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쓰던 통장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임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KB국민총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총무서비스는 모임 통장 운영을 위해 전용 통장 신규 개설이 필수인 시중 상품과 달리 기존에 쓰던 통장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해 쓸 수 있다.

KB국민총무서비스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미납자에게 ‘꼭꼭찌르기’ 알림을 보내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의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까지 가능하며 등록된 일정은 캘린더 외에도 알림 기능과 모임전용화면 배너를 통해 모임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이 밖에도 모임회비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월별리포트’ 및 KB스타프 렌즈캐릭터를 이용한 모임전용화면 꾸미기, 스티커 모으기 등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6월 9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한 서비스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모임 지원금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6월 16일 KB스타뱅킹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총무서비스는 기존 보유 통장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없다”며 “모임통장관리의 니즈가 있는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앱에서 공모주 청약정보 확인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 출시
캘린더 형태로 일정 한눈에

앞으로 케이뱅크 앱에서 주식계좌 개설과 주식투자, 공모주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11일 공모주 청약일정을 한 눈에 확인하고 예상 배정주까지 계산하는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주 메이트는 공모주 청약 일정과 청약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캘린더 형태로 청약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당일과 상장 당

일 등 주요 시점마다 알림으로 안내해 준다.

특히, 공모주 청약 계산기 기능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배정주를 계산할 수 있다. 입금액과 공모가, 증거금 비율 등을 입력하면 비례 배정 방식으로 자동 계산해 예상 배정주를 알려 준다.

케이뱅크는 이번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 출시로 앱에서 주식계좌 개설부터 주식 투자, 그리고 공모주 청약 정보 안내까지 주식투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나유리 기자

한은, 순천만 국제정원博 기념주화 발행

한국은행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은화)를 발행한다.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7월 26일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발행되는 화종은 은화 5만원화 2종으로, 1종은 박람회 대표 정원인 ‘호수정원’ 전경을 묘사하고 있고 2종은 노을 지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를 묘사하고 있다. 발행량은 화종별로 7000장씩 총 1만4000장이다. 단품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순천만 호수정원 전경과 순천만 습지 흑두루미). /한국은행

2000장(총 4000장), 2종세트는 5000세트(총 1만장) 발행한다.

/나유리 기자